

6월 모평은 '불수능'...영어 1등급 역대 최소

영어 1등급 1.47% 그쳐...광주 지역 1등급 없는 학교도 까다로운 기조 유지 맨 수능 최저기준 미충족 학생 많을 듯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월 모의평가처럼 출제된다면 재학생이 큰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광주지역 고교진학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일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국어·수학·영어 영역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됐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관이다. 특히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 영역에서 90점 이상 수험생이 1.47%에 그쳤다. 이는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소다. 수험생들이 고전했던 작년 수능에서도 이 비율은 4.71%였다. 80점 이상을 받아 2등급을 받은 수험생 역시 8.0%에 머물렀다.

영어 담당 B교사는 “광주지역 고교의 경우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다”면서 “학생들이 영어 목표 등급을 먼저 잡고 수시와 정시를 지원 전략을 짜는데,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런 난도가 수능에서 유지된다면 입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원가도 영어를 상대평가일 때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종로학원측도 “이번 모의평가는 2등급 확보도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분석했다. 1교시인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48점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작

년 수능(150점)과 견줘 소폭 낮은 수준에 그쳤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후반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국어 영역에 대해 EBS, 입시업체들이 일제히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까다로웠던 시험이라는 의미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83명에 그쳤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 점수(등급 컷) 역시 132점으로, 작년 수능(133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교시인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152점을 찍었다.

까다롭다고 평가받은 작년 수능(148점)과 비교해도 4점이 올랐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모의평가, 수능 통틀어 가장 높았다. 수학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697명이었다. 1등급 구분 점수는 135점으로, 작년(133점)보다 2점 올랐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모든 영역을 만점 받은 수험생은 6명으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없는 수능을 예고했지만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오히려 킬러문항 있는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올해 수능은 의대증원에 따른 N수생 증가로 출제기관도 난이도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수험생들도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 당선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신임 회장으로 조규연(사진)씨가 당선됐다. 부상자회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조규연 신임 회장을 선출해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8년 7월 1일까지다. 총회에는 대의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 신임 회장은 과반인 77명의 동의를 받아 선출됐다. 조 회장은 “5·18 부상자회가 다시 시민들 품으로 들어가 지역사회로부터 신임을 받도록 단체를 쇄신하는 데 힘쓰겠다”며 “지난 집행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민사회와 화합하는 단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비 그친 오후의 풍경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에 연꽃이 만개해 여름날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I가 교통 약자 보행신호 더 준다

광주시, 23곳에 스마트횡단보도...보행자 감지 신호 5초 연장

광주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교통약자가 미처 건너지 못했을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가동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경찰청과 함께 구축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를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19억원을 투입,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지역 23곳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산구 8개, 북구와 서구 5개씩, 남구 3개, 동구 2개가 설치됐다.

신호등 기동에 부족한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최장 5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운전자에게는 전광판으로 보행자를 알리고, 보행자에게는 음성으로 현장 위험을 안내한다. 임진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행자 중심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 안전은 높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헌법재판소 광주·대법원 대구 이전안 환영”

광주·대구 변호사회 공동 성명
광주와 대구 법조인들이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대법원 이전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시 광산)의원과 김용민(경기 남양주시병)의원이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광주와 대구로 이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지역 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만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방에 분산돼 실질적 권력분립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광주와 대구는 한강 이남의 동서지역 거점으로서 교육, 문화, 교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9번째 일자리센터 개소

치평동 롯데마트맥스 건물에 기업 매니저활동·취업지원 등

광주시 서구가 상무지구에 9번째 일자리센터를 새로 열었다. 서구는 광주시 서구 차평동 롯데마트맥스 건물 1층 365민원봉사실 내부에 ‘일자리센터 치평’을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에는 총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근무하며, 상무·치평 일원 기업(氣UP)매니저 활동 및 기업 데이터베이스관리,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장소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최신취업정보 및 취업지원제도 안내, 취업박람회·취업지도교육 개최 지원, 구직 등록 후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 대상 100일 취업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구직자의 적성과 경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등 취업 준비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는 서구청 1층 및 청춘발산공작소, 치평, 6개동 행정복지센터 총 9개의 일자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841명, 올해 36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서구 관계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주민 취업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